



뉴욕에서 The Sound Maker 전시회를 선보이는

예거 르쿨트르

예거 르쿨트르는 이번 9월 20일 월요일 뉴욕시 갠스부르트가(Gansevoort Street) 70-74 번지에서 The Sound Maker 전시회를 열며 미국에서 첫선을 보였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세계로 관람객을 초대하는 이 매혹적인 전시회는 그랑 메종의 차임 시계가 지닌 풍부한 유산을 탐구합니다.

개막식에는 미국인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퀘스트러브(Questlove), 아티스트 마이클 머피(Michael Murphy)와 알렉스 트로처트(Alex Trochut), 저명한 배우이자 그랑 메종의 프렌즈인 니콜라스 홀트(Nicholas Hoult) 등이 게스트로 참석했습니다.

전시는 이전에 대중에게 공개된 적 없는 모델들을 포함하여,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차임 시계 중 가장 오래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품들을 선정한 후 수십 개의 문서 및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선보입니다. 이번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독특한 유산 작품은 창립자 앙투안 르쿨트르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뮤직 박스로, 차임 시계에 관한 그랑 메종 역사의 출발을 보여줍니다. 방문객들은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포켓 워치에서부터 미닛 리피터 손목시계, 메모박스에 이르기까지,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진귀한 수공예 워크숍)의 특별한 작품 및 기술과 예술적 표현의 진화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리 조각(sound sculpture) 전시의 중심에서는 예거 르쿨트르가 스위스 모던 아티스트 지문(Zimoun)에게 의뢰한 설치 작품인 '소리 조각(sound sculpture)'이 미국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지문은 이 매력적인 작업에 매뉴팩처와 주변의 자연 세계에 울려 퍼지는 소리의 세계를 모두 녹여냄으로써, 예거 르쿨트르의 정신에 내재된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CEO 캐서린 레니에(Catherine Rénier)는 “처음에는 마음을 부드럽게 가라앉혀 주는 빗소리라도 같은 소리에 매료되었다” 고 전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금속의 움직임에 시선을



사로잡혔죠. 각각의 각도가 다른 느낌을 주어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소리를 들으며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문은 예거 르쿨트르의 시계를 구성하는 소형 DC 모터와 가는 전선, MDF 패널, 금속 디스크를 포함한, 단순한 원자재와 용도가 변경된 산업 부품으로 조각, 움직임, 소리에 대한 전통적인 아이디어를 재정의하여 관람객을 초월적인 감각 경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퀘스트러브의 사운드 오브 뉴욕

드러머, DJ, 프로듀서, 요리 기업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더 루츠(The Roots) 멤버인 아미르 “퀘스트러브” 톰슨(Ahmir "Questlove" Thompson)은 예거 르쿨트르와의 협업을 통해 The Sound Maker 전시 참가자를 대상으로 뉴욕의 저명한 음악사를 들려주는 7 시간의 플레이리스트를 선정했습니다. 사운드에 찬사를 보내는 플레이리스트는 초기 재즈와 소울, 펑크, 힙합, 디스코를 비롯하여 현대를 아우르는 뉴 웨이브와 같은 상징적인 음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퀘스트러브는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힙합 그룹의 핵심 멤버이며, 그가 사랑하는 루츠 크루가 하우스 밴드로 활동 중인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래미상을 5 번이나 수상한 확고한 명성으로 인해 디안젤로(D'Angelo), 에미넴(Eminem), 제이 지(Jay-Z)에 이르는 여러 가수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가 제공하는 퀘스트러브의 “사운드 오브 뉴욕(The Sounds of New York by Questlove brought to you by Jaeger-LeCoultre)” 은 스포티파이에서 공개되며, 아래 QR 코드를 통해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아틀리에 앙투안 디스커버리 워크숍

이번 전시회를 위해 특별히 뉴욕시로 옮겨온 아틀리에 앙투안(매뉴팩처 설립자의 이름을 따 명명)에서는 차임 시계와 함께 직접 모형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강사와 기술 전문가와 함께하는 참가자들은 시계가 ‘똑딱’ 거리며 가는 이유, 소리로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예거 르쿨트르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기 위해, 고도로 숙련된 그랑 메종 워치메이커의 작업을 그대로 재현하여 커다란 모형을 통해 실습해볼 수 있습니다.

90 분간의 아틀리에 앙투안 디스커버리 워크숍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최대 6 명으로 제한되는 수업으로 www.thesoundmakernyc.com에서 사전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The Sound Maker 전시회는 9 월 21 일부터 10 월 5 일까지 뉴욕시 맨스부르트가 70-74 번지에서 열리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10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예약제로만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티켓은 www.thesoundmakernyc.com에서 무료로 온라인 예약할 수 있습니다.

The Sound Maker 소개

예거 르쿨트르는 150 년간 축적해온 전문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발레 드 주의 일상적인 자연의 소리와 차임 시계의 위대한 유산에 경의를 표하는 The Sound Maker 에 찬사를 보냅니다. 1870 년, 매뉴팩처가 첫 번째 미닛 리피터를 개발한 이후 150 년 동안 차임 시계는 간단한 알람부터 극도로 정교한



소네리와 리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며, 전문성을 입증하는 200 개의 칼리버를 통해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매뉴팩처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은 음향의 품질과 그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수많은 혁신 기술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jaeger-lecoultre.com